

# 작아진 한가위 선물보따리

### 1인 가구 증가로 선물 변화...소용량 품목 50% 신장 김영란법 대비 5만원 이하 상품도 전년비 30% 늘어

가량 신장했으며 향후에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지난해 10월 기준 51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했으며, 2025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식주 전 부분에 걸쳐 1인 가구를 겨냥한 변화가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통업계에서도 소형 가전, 간편 조리식품 등 다양한 1인 특화 상품을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광주신세계에서도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콘셉트의 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원하는 부위, 등급, 중량을 기호대로 선택해 구성할 수 있는 한우 맞춤형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물량을 늘렸다. 또 청과 또한 고객이 원하는 종류와 수량을 마음대로 담

아 구성할 수 있는 청과 바구니 선물세트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 밖에도 멸치 특선 5호 4만9000원, 만천 강구온 재래구이 김 세트 4만5000원, 화이트로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세트 3만5000원, 소곡주 도일 세트 4만8500원, 담양한과 백련 4만원 등 김영란법을 겨냥한 5만원 미만 상품도 대거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지역 내 우수산지와 직거래하여 가격을 낮춘 고품질 저 단가의 선물세트도 대폭 늘렸다.

명절 선물세트의 대표주자 격인 한우 세트의 경우 정부의 한우 사육 머릿수 감소 정책으로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대비 10~20%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광주신세계는 한우세트를 보다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 재구성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인기를 끌었던 한우 실속세트

의 대표상품인 한우 후레쉬 5호를 18만원, 전통 양념한우 불고기 15만원 등에 판매하며 나주 함평 장흥 등의 산지에서 직접 키운 한우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26일~9월 13일 추석 선물세트 판매를 한다. 롯데백화점도 올해는 실속형 선물세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중저가 물량이 대폭 늘어났다.

10만원 이하 중저가 선물세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25% 늘어났고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났다.

반면, 프리미엄 선물세트도 강화해 최고급 상품으로 구성된 '프레스티지' 선물세트 준비 물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26일 광주은행 본점 4층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대상 문화교실 1기 개강식이 열려 수강생 2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문화 벽 허무는 '광주은행 다문화교실'

### 1기 개강식...메이크업·캘리그래피 등 수업 다양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지난 26일 광주은행 본점 4층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교실 1기 개강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문화교실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체험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광주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천으로 선정된 20명의 1기 수강생들에게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메이크업, 캘리그래피, 전통 차게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수업을 펼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MBTI(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 검사 및 광주은행 직원이 직접 강의하는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한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서재수 부행장은 "다문화가정 문화교실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서적인 후원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용기자 lion@kwangju.co.kr

## 카드 이용 하루 2조원

### 전년보다 12% 늘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평균 카드 이용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중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금액은 하루평균 2조34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0% 늘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상·하반기 기준으로 카드의 하루평균 이용액이 2조원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하루평균 1조27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3% 늘었고 체크카드는 4040억원으로 14.9%나 증가했다.

모바일카드 이용액 역시 410억원으로 50.5% 급증했다.

신용카드의 소비유형별 이용실적을 보면 편의점이 하루평균 130억원으로 39.6%나 뛰었다.

홈쇼핑 및 인터넷쇼핑(20.8%)과 국산 신차(16.5%)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주유소는 8.9% 감소했다.

결제 건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신용카드의 하루평균 결제 건수는 2749만건으로 9.2%, 체크카드 결제건수는 1660만건으로 19.0% 증가했다. /연합뉴스

## 한전 美 전력시장 첫 진출...태양광 발전소 인수

### 콜로라도주 알라모사 발전소

### 칼라일 그룹과 MOU 북미 풍력·민자 발전 등 추진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태양광 발전소 인수를 통해 미국 전력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한국전력은 28일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칼라일 그룹의 자회사인 코네티컷스 솔라 홀딩스사와 콜로라도주(州) 알라모사 카운티에 자리 잡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지분인수·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완공된 알라모사 발전소는 1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30MW 규모의 발전소다.

지분 인수 금액은 3400만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한전은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으로 조성된 코퍼펀드와 함께 알라모사 발전소 지분 100%를 인수했다.

한전은 "1995년 해외사업을 시작한 이래 세계 최대 선진전력시장인 미국에 최초로 진출하게 됐다"며 "북미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해외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라모사 발전소는 렌즈를 사용한 집



조환익 한전사장(오른쪽)과 칼라일그룹 덴디니엘 회장이 지분인수계약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광형 모듈을 활용해 기존 일반 실리콘 모듈보다 성능이 개선됐다. 모듈의 효율은 최대 약 31%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발전소는 오는 10월부터 운영된다. 생산된 전력은 콜로라도 전력과의 장기 판매계약(PPA)을 통해 소화된다. 한전은 사업 기간 26년 동안 2억3000만달러(약 256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발전소 단지 내 유휴 부지에 국내 기자재를 활용해 패널을 증설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경우 150억원 가량의 수출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칼라일 그룹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를 통해 북미지역 민자발전사업,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사업, ESS 등에너지사업에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최근 북미, 중동, 아시아의 거점을 잇는 '한전 글로벌 에너지 벨트'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효율 에너지 사업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전의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재용기자 lion@kwangju.co.kr

## 현대차 임금협상안 부결

### 낮은 인상 폭 불만 찬성 21.9% 역대 최저...이번주 교섭 재개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로 부결됐다. 200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8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체 조합원 4만9665명을 대상으로 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5777명(투표율 92.17%) 가운데 3만5727명(78.05%)이 반대해 부결됐다.

찬성은 1만288명(21.9%)에 그쳤다. 이는 역대 입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가장 저조한 찬성률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결 원인은 올해 합의안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상승안이 최근 몇 년 사이 합의안과 비교해 낮아 조합원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노사는 다음 주부터 교섭을 다시 해야 한다. 앞으로 2주일 안에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해야 추석 연휴 전 타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 24일 임금협상에서 임금 5만8천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시 10주를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협상 교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쟁점인 임금피크제 확대 요구안을 철회했다.

노사는 또 미래 임금 경쟁력을 확보하고 통상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는 올해 임협 과정에서 7월 19일부터 나흘 연속 부분파업 등 모두 14차례 파업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717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 11 19 25 28 32 4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702,433,688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7,498,590	47
3	5개 숫자 일치 1,369,015	1,974
4	4개 숫자 일치 50,000	96,836
5	3개 숫자 일치 5,000	1,567,530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램**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램**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동일동**  
광신프로그램  
GwangShin Apartment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 062-511-1141

시행 1주에이저런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에서 만나보십시오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48199호

2중단열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